



주님나라
임하소서

9 일 기도

승천대축일부터
성령강림대축일까지

앤서니 포고 주교

세계성공회공동체 사무총장
워싱턴계더 옮김



주님나라 임하소서

9일 기도



주님나라 임하소서: 9일 기도

(앤서니 포고 주교 지음)

Copyright © 2024 by Thy Kingdom Come

한국어판은 원저자의 허락을 얻어 워십투게더팀이 제작했습니다.

성서 인용은 '공동번역성서'를 따랐습니다.

Thy Kingdom Come: Novena

(Written by Bishop Anthony Poggo)

Copyright © 2024 Thy Kingdom Come.

Used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US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Photos used with permission.



주님나라 임하소서

9일 기도

앤서니 포고 주교

세계성공회공동체 사무총장

워싱턴계더 옮김

들어가며

‘오소서, 성령이여.’ 이 간단하지만 깊은 기도는 ‘주님나라 임하소서 Thy Kingdom Come’ 운동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172개의 나라를 넘어 세계로 퍼지는 이 기도 물결은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초기 교회의 경험과 실천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제자들의 선교가 지속적인, 그리고 놀라운 기도로부터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와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성령강림절의 사건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언어와 문화는 어떤 장벽도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노베나 NOVENA. ‘9일기도’. 승천대축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9일간의 기도는 ‘Thy Kingdom Come’의 국제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올해 노베나의 저자이며 세계성공회공동체 사무총장 안토니 포고 주교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교님이 이어받으신 아프리카 전통, 그리고 세계 모든 대륙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나라, 세계 모든 곳에서 ‘오소서, 성령 이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올해는 요한묵시록을 매일 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혼란함은 성서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배경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제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다섯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올해 ‘Thy Kingdom Come’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

1

2

3

4

5

승천일 ASCENSION DAY

주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서 1:4-5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을 두들겨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보지 않습니다.

북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분노와 폭력, 박해와 불의함, 분열과 고립이 만연한,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아이들이 양육자를 잃거나 학대받는 세상의 많은 곳에서, ‘아무도 없어요?’ 하는 질문을 담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서 1:4-5를 기록한 그리스 파트모스 섬에 유배된 요한이 악의 파괴적인 환상을 본 이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테러리스트로 대체 되었을 뿐,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살상,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대로입니다. 무기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악의 공포는 그대로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배당한 사도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회 협의회 예배, 가나

이 소식은 중요한 확신입니다. 요한의 글을 본 이들 중 몇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정말로 계신 분입니다. 은총과 평화, 용기와 도전,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히브 13:8)'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병아리만 노린다. 그래서 새끼 사자는 걱정이 없다.' 독수리는 사자를 무서워하여 새끼 사자를 건드리지 않으니, 새끼 사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공포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변화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이 열린' 모습은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이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담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다섯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 안에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요한복시록 1:5-6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복시록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합니다. 요한복시록의 몇몇 장면은 꽤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것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유, 이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인가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한 설교자의 말처럼, 우리는 '사랑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고 보잘 것 없다 느끼기 쉽습니다. 기후 변화, 기아, 노숙자, 전쟁, 가족의 해체 등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힘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능히 사랑하십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생각해봅시다. 그 여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도우려 가던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멈추신 다음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이 치유를 위한 접촉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마르 5:24-34).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을 위해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노인을 존중하는 반면, 젊은이들의 필요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에는 투자하지만 평생 많은 것을 헌신해온, 그래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나이, 배경, 국적, 민족, 성별, 학력,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와 상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느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 보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좋은 기초가 됩니다.

물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네갈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 하느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모두를 위한 것,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 없이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 받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매우 친밀한 말로 표현됩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면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

요한복서록 1:10-11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 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엥곰비 eng'ombe’라고 부르는 우간다 트럼펫이나 인도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금관악기, 환영의 의미로 사용하는 마오리 트럼펫인 ‘퍼키아 Pukaea’까지, 언제 어디서나 나팔 소리는 우리의 주위를 끕니다. 남수단의 딩카족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북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소리들은 쉽게 들립니다. 경고의 소리거나 축하와 환영의 소리, 혹은 싸움을 준비하라는 소리인 이 소리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파트모스섬에 유배되어 친구와, 교회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요한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 갑자기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구세주 이시며 요한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바로 ‘하느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요한복서록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서록을 반문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연구 성경 African Study Bible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당하고, 성서는 폄하됩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순교자인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른 성서는 그 외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멈춘다면, 성서의



성령새신집회, 트리니다드 토바고 교구

외침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매일 성서를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여 이를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 쉽게 흐트러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아이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성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우리의 이기심과 죄를 말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싶어합니다. 성서를 언제나 최선으로 두십시오.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되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우리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직접 되갚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수는 다시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처럼 눈에는 눈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볼 수 있는 이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와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청하십시오. 크렌머 대주교의 말처럼, 발견되는 모든 것은 가장 확실한 근거와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서 1: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의 가장 마지막 책의 도입부에 있는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님께 소망을 둔 모든 이들의 삶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는 로마제국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그들은 이제와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를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시며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부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이라는 숲에 있는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서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 세상과 우리 서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회 사무국

아프리카 속담에 '노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면, 지금 나무를 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돌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원의 주인을 몰라도, 정원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섯 사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하느님의 창조를 향하게 되어 창조하신 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느님

요한묵시록 3:7-8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무료 증정'이라는 말은 가장 솔직한 광고입니다.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역사적으로 제물을 바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만, 혹은 '성스러운' 장소에 가야만 하느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이와는 완전히, 그리고 놀랍도록 다릅니다. 성서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요한의 묵시록 말씀은 오늘날 튀르키예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주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다는 선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이끄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3개국어 Thy Kingdom Come 행사, 스리랑카 콜롬보

조금 이상한 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더 많은 기도의 응답, 더 많은 성령의 은사, 하느님의 임재에 대한 더 민감한 감각 등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이웃과 사회에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 습니다.

‘Thy Kingdom Come’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적어도 그들 중 다섯에게 성령 계서 함께하셔서 그들이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청하는 기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의미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 아프리카 속담을 떠올려보세요.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키기에 너무 작다고 느껴진다면, 한 마리의 모기와 밤을 보내보라.’ 남수단 주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는 이 속담의 의미가 아주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다섯 사람을 위해, 또 다른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더 많은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다섯 사람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느님

요한복음 1:12-16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 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정말 당신이예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왠지 모르게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옷을 입고 있고, 살이 빠졌거나 찢을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는 친숙함이 있습니다.

요한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유배, 기억, 외로움, 믿음 그리고 소망에 개입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환상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구약 성서의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긴 옷과 가슴에 두른 금 띠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며, 성 금요일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흰 머리와 타오르는 불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에서 따온 것이며, 말씀하시는 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오늘 독서의 시작 부분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절(독서 본문에는 “사람같이 생긴분”으로 번역됨)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봅니다.



피지의 성공회 학교 아이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와 예루살렘 거리를 함께 걸었던 친구. 가나 마을의 혼인잔치에서 파티를 할 줄 알았고, 겐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을 보셨던 친구. 이 친구는 '풀무불에 단 놋쇠'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림의 나머지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이 요한의 친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견뎌왔다고 제안 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난민으로 도망쳐 목수로 생계를 꾸리셨던 하느님의 아들, 문둥병자를 사랑하시고 세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성노동자와 친구가 되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신 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들으시는 하느님

요한복서 2: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아이가 처음으로 농담을 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배웠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 모두에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할 때마다 웃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지어 전에 들어 본 이야기일지라도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열심히 들으면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친구, 국가의 거대한 문제(기아, 전쟁, 기후 변화, 빈곤)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관계를 사랑하시며 대화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느님의 사랑과 계획에 더욱 일치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살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우상 숭배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정치적 사상, 유명인의 생각, 또래 집단의 압력과 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어려움을 나눈다는 것은 수 세기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압박감, 실패, 두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힘은 군대나 정치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생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를 지켜 보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원히 맞이하실 분이십니다.

2천년 전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만날 사람들을 하느님 앞에 붙잡아 두세요. 하느님께서 그들이 겪은 일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또한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 위에 계속 서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아니오' 또는 '기다리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의심과 우리 자신의 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할 때, 주님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의 용서는 자유롭고 총만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그분께 말씀드리면, 그분은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섯 친구를 주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회 협의회 예배, 가나

구원하시는 하느님

요한복서 1:17-18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남아공의 두 광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풍부한 탄층을 채굴 하던 중 지붕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무신론자인 광부의 헬멧을 덮쳤습니다. 지붕 전체가 무너질까 두려워 그는 '하느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웃으며 '여기 있었군요, 내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커다란 석탄 덩어리만한 것이 없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해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은 계시는가,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그를 흔들고, 충격을 주고, 감격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반응과 같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 끝났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파멸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인간의 자연스럽고 올바른 반응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성공회 협의회 예배, 가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즉 하느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울한 최종 진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 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의 요한복음 모두가 전하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느님의 반응은 자유 롭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사야는 정결한 석탄의 상징을, 요한은 주 예수의 치유의 손길이 그를 만지고 회복시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 하세요.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멋진 연설을 준비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달려와 겹옷 과 반지, 그리고 신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용서하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며,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잔치에 환영받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손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전하시는 하느님

요한복시록 2:4-5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에페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는 요한이 쓴 편지 중 가장 고통스러운 편지였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에페소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과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의 역량을 칭찬하시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재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가 위협받게 됩니다.

몇년 전의 사랑은 오늘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습관으로 바뀌고 동료 교인에 대한 사랑이 관료주의와 끝없는 위원회 회의로 바뀌었다면 불은 꺼진 것입니다. 위험은 내면의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스터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오래된 음식을 먹거나 20년 된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음식과 최신 뉴스를 원합니다. 부실하고 차가운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지 맙시다. 교회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회개합시다.' 요한의 편지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격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신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했던 전통은 오늘 구절에 비추어 볼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도전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해야 할 것,



방글라데시 바리살 교구의 기도하는 여성들

노력해야 할 것,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을 제시할 때, 우리는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그분의 은혜로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변화를 원하시는 삶의 영역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첫 번째 스케치나 윤곽선에 아름다운 색채와 섬세한 붓놀림으로 그림이 선명해질 때까지 덧칠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림이 되어야 하므로 신성한 예술가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그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옛 노래 ‘주여, 나를 빛나게 하소서’의 가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나를 빛나게 하소서, 주여, 내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빛나게 하소서, 세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분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다섯 사람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하느님

요한복서록 3:20-22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멋진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 구절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화가 윌리엄 홀먼 헨트가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의 그림 중 하나는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소재가 아니라,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셉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눈 멀고 별거벗은 자' 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풍부한 옷감과 안약 그리고, 부로 유명했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처럼 되라는 부름을 받았 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적, 부유함이나 가난함, 학력이나 직업에 의해 정의 되어서는 안 되며,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정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은 단순한 회심의 결단이 아닙니다. 세례가

그 예사이자 상징인 ‘위대한 거래’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에 상관없이 매일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카누가 아무리 커도 뒤집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자수성가하겠다는 결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끌리기에는 너무 크거나, 너무 늙거나, 너무 성숙하거나, 너무 영리하거나,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다섯 명도 삶의 문을 두드리며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누가복음 24 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문을 열면 손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으니(히브리서 13:2),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키 신부님과 한국의 Thy Kingdom Come 리더십

성령강림주일 PENTECOST

‘성령이여 오소서’

요한복시록 3: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경청은 가장 배우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시록의 시작 부분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의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라는 긴급한 명령은 각 교회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Thy Kingdom Come 기간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온 지금이,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요한복시록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의 상황, 희망, 두려움, 꿈, 도전, 잘못과 실패를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경 속에서 위로를, 기회 속에서 힘을, 약함 속에서 능력을 알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하시듯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모든 것,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루가가 묘사한 오순절 첫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날부터 기도해 온 제자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홍콩 성요한 대성당 예배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예루살렘 거리로 인도하여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은사를 주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오래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언어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분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첫 오순절에 사용되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필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에 도달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19)는 한 가지 명령이 귓전을 울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은 주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한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써 이를 이룹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다섯 명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 예수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thykingdomcome.global

